25년 1월 목회일정

5일(주일) 수료 및 진급식 12일(주일) 성찬조별기도회

뉴웨이브교회 공동의회

1-2월(오후) <기도 :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송영>강설

6일(월) 노회 신년인사회(함께하는교회당)

20일(월) 두 교회 교역자 수련회

29일(수) 세속명절(설)

주간소식

환 영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합니다 예배 후 담임목사를 만나시고, 돌아가세요

- 1. 성찬예식 / 매일 예배와 성찬상을 위하여 자신을 살핍시다. [본 교회 당회의 허락을 받은 입교인이 참여합니다]
- 2. 오후예배헌금 / 선교목적(외국인근로자선교회 김성욱선교사)
- 3. 성찬교구와 성찬조 / 예배당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 4. 성찬조별기도회 / 오후예배 후에 있습니다.
- 5. 기부금영수증 / 필요하신 분은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주소 전화번호 직장명)
- 6. 목사동정 / 뉴웨이브교회 공동의회인도-오늘 오후2시
- 7. 가정(개인)기도회 / 밴드에 올려지는 아침묵상과 기도제목, 주보의 [설교요약지], 가정성경읽기 등을 참고하세요.

한 주간도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고, 전투적인 사명을 다 하며 승리하는 삶 되세요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소속**으로 1997년 1월 **개혁주의교회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해 예배 안에서 **참된 교회의 3가지 표지**인

- ① 진지한 말씀의 강단 구축(설교, 강독)
- ② 성례의 정확하고 성실한 거행(세례, 성찬)
- ③ 정당하고 올바른 권징의 시행(권고, 치리)을 애쓰며 노력하는 언약공동체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동래언약교회 집회안내

주일	오전	11:00	
예배	오후	15:00	
	아침기도	06:00(월-금)	
주간	수요기도회	09:30	
기도 회	금요기도회	21:00	
	지역기도회	각지역결정	
	유/SFC	주 13:00	
교회 학교	교회알기	주 13:30	
,	청년회	주 14:00	

이 달의 봉사자

		01월	02월
교회소식		고충석	김영민
봉	헌	김낙형	구성본
안	내	조안나	최진언

평균케 하는 원리

후원	개 혁 정 론(고신 개혁 언론) 파 서 교 회(고신,강인종)
	파 서 교 회(고신,강인종)
서교	외국인근로자선교(이요한) 김성욱선교사(특수지역-M국)
선교	김성욱선교사(특수지역-M국)
그레	곡성연화교회(최지혁)
구제	부산장애인전도협회(정용균)
장학	고려신학대학원(기동연원장)

교회봉사자

- · 시무목사 / 최성림 양주동
- · 시무장로 / **김영민 고충석** 목사
- · 시무집사 / **이경준 김낙형**
- · 반 주 / **문경실**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의 터 위에 든든히 서 가는 교회(행20:32)



대한예수교 등 로 회

동래언약교회

DONGNAE COVENANT presbyterian Church

	주일오전예배 오전11시 인도 최성림 목사 설교 최성림 목사
	교 회 소 식
예배는 하나님과	개 회
그의 백성과의	* 예배에로의부름 ↑시 121: 1-2(교송
만남입니다.	인도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예배를 통하여	회 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로다.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을	* 축 복 의 인 사 ↓ 고전1:3(인도자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 · · · · · · · · · · · · · · · · · · ·	* 경 배 찬 송↑
언약백성의 기 쁨을	죄의고백
함께 나눕시다.	* 십 계 명 봉 독 ↓ 출20장(주계명/교독
	* 죄의공적고백 ↑ 제 5형
	* 용서의은혜의선포 ↓ 인도지 * 감 사 찬 송 ↑ 찬송가79장(3-4)
	말씀봉사
	설교를위한기도 ↑ 인도지 성 경 봉 독 ↓
	성 경 봉 독 ↓ ······· 왕상18:26-29,마6:5-8,14-15 선포를위한찬송 ↑ ····· 시편116편(1-3
	선포를위한찬송 ↑
	외식으로 이룬 기도
	아 멘 송↑
	성례시행
	세 례 식 ↑ 필요시 시행
	성 찬 식 ↑ 초대 신앙고백 찬송가230장(1-2) 구제헌금 분병 분잔
	목회의기도↑ 교육 기도 설교지
47739	봉사사역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 261-1	봉헌및봉헌찬송 ↑
예배당 051) 558-4890	폐 회
목사관 010-4564-4890	* 강 복 선 언 ↓ ······ 설교지
www.dcpchurch.com	[' '
	*는 일어서서(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계셔도 됩니다)

주일오후예배	오후 3시	인도 양주동 목사 설교 양주동 목사	주간기도회
교회소식 * 예배에로의부름		······· 시134:1,3(교송)	아침기도회 월~금 6시(교회밴드) 요한복음 묵상 인도 : 최성림 목사
회 중: 천지를 지으 * 축 복 의 인 사	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 ↓ 주 예수를 앎으로 은혜와 평경	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에서 복을 주실찌어다 변후1:2(다함께) 성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시편67편(3-4)	수요기도회 수요일 9:30(예배당) [나의 이름을 위한 집] 인도 : 최성림 목사
* 신 앙 고 백 * 감 사 찬 송	신앙고백 ↓ ································ ↑ ··········	············· 니케아신경 ··· 찬송가548장(2-3)	금요기도회 금요일 21시(예배당)
	↑ ····································	인도자 출31:13-14 하이델베르그103문답 산송가43장 설교자	지역기도회 인도 : 최성림 목사 * 동부(수, 20:00) 인도 : 양주동 목사 * 김해(월, 19시)
아 멘 송 봉헌및봉헌찬송 * 강 복 선 언	안식일을 저 ↑자비사역 ↑ 폐 회 ↓	한송35장(4a-5b) 설교자	주간성경읽기 주일 출 16-18 마8:23-34 월 출 19-20 마 9:1-17 화 출 21-22 마9:18-38 수 출 23-24 마10:1-23 목 출 25-26 마10:24-42 금 출 27-28 마 11 토 출 29-30 마 12:1-21

주일설교를 기억하며(외식으로 이룬 기도)

- 1. 나의 만족이나 평가를 위한 외식적인 기도가 아닌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되게 2. 하나님의 약속을 바르게 알아 구하고 모든 생활 속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 3. 주님의 자녀로서 성도들의 잘못에 용서의 손길을 펼치며 서로의 안위를 살피는 성도되게

김성욱선교사(몽골)

- 1. 섬기고있는 생명의길교회가 삼위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되게
- 2. 현지인사역자에게 맡긴 몽골장로신학교가 신실한 사역자를 양육하고 몽골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 3. 개혁주의신학서적을 몽골어로 번역*출판하는 사역(58권)을 통해 몽골에 개혁주의교회가 굳게서게
- 4. 격주마다 모이는 개혁주의목회자 성경연구모임(두 그룹)을 통해 개혁신앙의 실질을 이루어가도록 외국인근로자선교회(이요한 목사)
- 1. 노동과 생활풍속 문화의 차이와 언어로 어려움을 당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어려움을 잘 이기게
- 2. 외국인근로자들이 고용주들이나 내국인 동료직원들의 차별없는 대우로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 3. 이교도인 근로자들이 신앙의 건덕을 지닌 내국인친구들을 만나 복음을 듣고 회심할 수 있도록 **직분자들의 봉사를 위하여**
- 1. 모든 직분자들이 마음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 주의 몸을 굳게 하도록
- 2. 직분자들이 한 형제 자매된 성도들을 돌아보며 자신과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도록

자녀들의 주일예배를 돕는 부모들의 역할(1- 전에 교회카페에 쓴 글)

- 1. 자녀들이 예배의 날(주일)이 정말 즐거운 날로 기다리도록 준비합니다.(예배에 대한 소망, 특별한 음식, 구별된 의복, 즐거운 준비 등)
- : 저는 목사이다 보니 주일을 항상 긴장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주일이 즐겁고 기쁜 날이 아니라 늘 긴장과 엄숙함만을 요구하는 날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다 입교를 한 지금.. 아이들이 주일을 정말 복되고 즐거운 날로 누리게 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늘 있습니다.
- 2. 예배의 자리에서 조용히 해야 한다고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만남의 시간이 조용할 수만은 없잖아요) 사전 에 밴드를 통해 공지된 본문과 설교요약, 그리고 찬송의 내용들을 통해 예배 안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사건(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게 가르칩니다.(유아세례와 언약 안으로의 부르심,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아가는 즐거움, 찬송을 통해 누리는 구원의 기쁨 등을 미리 생각하게 합니다)
- : 토요일 저녁에는 아이들과 같이 앉아서 내일 예배시간에 읽을 본문과 설교요약의 간략하게 전달해 주고 가능하다면 예배시간에 부를 찬송을 한곡이라도 미리 불러 본다면...아이들이 설교시간에, 찬송시간에 더 적극적일 것입니다.
- 3. 예배 중에 자녀들이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도와줘야 합니다.(예배 순서와 의미들, 찬송가와 성경찾기, 설교적기, 설교토론 할 내용 만들기 등...)
- : 자녀들에게 자주 예배순서와 의미를 물어봐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글을 읽을 수 있는 아이들에게는 성경찬송 합본을 한 권씩 선물하세요. 매주일 설교시간 에 설교토론할 거 생각하라는 미션을 주면 부모와 미션을 나눌 것을 기대하면서 예배에 더욱 집중합니다. 매주일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설교에 대한 질문을 하면 아이들은 집에 갈 때 엄마 아빠와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아서 더 집중해서 설 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따라 적게 하는 것도 아이들이 예배와 설교에 집중하는데 도움이 되요(계속)

1. 성찬교구

	교구장 : 고중석 장로			
Ι	고충석 김명순 이경준	최현미 박지영	조안나 김용대 문	문경실 김영규 박종순
	김요림 최예지 최진언	고태은 고주은	고서은 이은수 그	고대벽 김유안
	교구장 : 김영민 장로	김낙형 집사		
п	교구장 : 김영민 장로 김영민 노주혜 김낙형 이한나 김유니 조완식	강정희 김영덕	이영서 김경이 -	구성본 김학희 김민혁

2. 성찬조

성찬 1조	조장 : 고충석 브	부조장 : 김용대
고충석 김명순	김영덕 김용대 문경실	방준범 김유니 김요림 이영서 최예지
고태은 고주은	고서은 김유안(김이현	김이찬 김이설 방하림 양선 양현)
성찬 2조	조장 : 김영민 -	부조장 : 이경준
김영민 노주혜	이경준 최현미 김민혁	이하나 김경이 조완식 최하언 이은수
고대벽(이은우	김선우 김이준 김이솔 /	/ 이수정-원입)
성찬 3조	조장 : 김낙형	부조장 : 박지영
김낙형 강정희	박지영 조안나 구성본	김학희 김영규 박종순 최진언 이근영
김성윤 김성재	구하영 (구하린 박재희	박재윤)

2. 안식일 성수의 이유: 구속

다른 이에게 종으로 잡혀 있다면, 안식할 수 없습니다. 악한 주인에게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를 "구속"에 둡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부활하신 일요일이 새로운 안식일로서 "주일"이 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부활의 날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지켰습니다. 이 날은 '구원의 날'이면서,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새창조의 날'입니다.

구속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창조주께서 그러하셨듯 우리를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해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알을 까먹으니 '노동'을 했다고 정죄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날이라고 하셨습니다(막 2:27). 하나님은 사람을 안식케 하기 위하여 이 날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단지 사람이 안식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이 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막 2:28; 출 31:13). 사람은 이 안식의 날에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며 안식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3. 주일성수를 위하여 해야 할 일

요리문답은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말씀의 봉사"라고 가르칩니다. 안식의 날인 주일에 꼭 있어야 할 예배의 요소는 "말씀 사역"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보이는 말씀인 성례가 시행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공적으로 부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이 말씀의 봉사를 위해서는 "교육"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말씀사역자를 교육하는 일입니다. 목사후보생이 급감하고 있는 시대에 교회들은 목회자들이 충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의 안식이 유지될수 있도록 말씀사역자도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숫자만이 아니라 말씀사역에 부족함이 없는 자격을 갖춘 말씀사역자가 유지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의 안식까지도 관심을 가지는 일이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주일은 안식의 날이면서 영원한 안식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이 날의 주인이십니다. 성도는 안식의 날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주일의 안식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안식도 보장됩니다. 단지 오래사는 것이 영원한 삶이 아닙니다. 지옥과 멸망의 고통도 영원합니다. 그러나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함은 "생명의 영원함"입니다. 하나님 안에만 생명과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주님의 날을 시작으로 영원한 생명과 안식에도 참여합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시작으로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이끄십니다. 이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동래언약교회 가정기도회[2025년 1월12일 주일오전]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찬 363장
성경봉독	마6:5-8,14-15 온	상18:26-29
설 교	외식으로 이룬 기도	부모대독
기 도		부 모
주기도문		다 같 이

주제 : "하나님께서는 모든 외식하는 유형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자시의 경건을 드러내는데 기도만큼 좋은 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한 사람들의 외식을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1.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외식하는 자들이 좋아하는 기도의 방식의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빛을 비추다, 드러내다'의 수동태)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장소는 '기도의 목 적'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그 어떤 곳에서든지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곳에 우뚝 서있습니다.(눅18 장-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평가하도록 움직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기도를 통하여 받기를 원한 것이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이었다면, 과연 그들은 이미 사람들의 평가를 통하여 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하"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골방'은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계시다'는 말과 연결되어 사람들과 단절된, 혹은 숨겨진 은밀한 상태를 말합니다. 세리가 '멀리 서서' 기도하였던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눅18:13)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사람들과의 교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방에서 은밀히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은밀히, 쉽게 말하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골방에서 은밀히 기도하라는 말이 공적인 기도회나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골방에서, 혹은 은밀한 기도'를 강조함으로서 외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관심을 집중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은밀한 기도입니다.

2. 중언부언하는 기도

외식하기 위한 두 번째 기도의 모습은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중언부언은 '말을 많이 하다'는 단어와 어근이 같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이방인의 기도'라고 구별하신 것입니다.(왕상18:26-29)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이 방인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혹은 크게 많이 부르짖거나 외치면 더 잘 응답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불필요하다고 경고하시며,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의 신앙고백은 기도를 '은혜의 방편'중에 하나(웨민 소교리88문답)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요소'(하이델베르그116문답)라고 가르칩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그 약속을 따라 간구하지 않는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무관한 삶을 살고 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니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그 약속하신바를 값없이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하는 것은 분명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 범할 수 있는 잘못된 기도생활에 대하여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십니다. 이런 기도의 모습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심을 믿지 못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가 길게 기도하는 것이나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을 금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주의 약속이 이뤄지길 반복해서 기도할수 있고,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길게 기도하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하늘에 계신만유의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오직 감사함으로 구함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을받을 뿐 아니라 기도 속에서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게 될 것입니다.

3. "잘못에 대한 용서와 기도"

본문에서 주님은 용서에 대한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잘못'이라는 단어는 '옆으로 미끌어지다'. 혹은 '무엇에 걸려 넘어지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곧 본문에서 '용서해야 할 형제의 잘못'은 누군가가 고의로 죄를 짓거나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범할 수 있는, 그야말로 '부지중에 실수한 일을 의미'합니다.(민35장도피성규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부지 중에 범한 죄는기다리지 말고 용서하라"고 명하십니다.

'너희가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라!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의 제 5번째 간구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는 부지 중에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사하여 줘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할 수있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마18장-일만달란트 탕감받은 종 비유) 뒤집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빚의 탕감을 받았지만, 우리에게 조금 빚진 자를 사하여 주지않는다면 우리의 빚을 탕감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죄의 값을 청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됩니다.(막11:25)

'이 용서의 기도'에 치명적인 '기도의 외식'이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 편에서 죄를 용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마치 죄용서 받은 자인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한 상대방에게는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울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사람들에게 자기 상을 받은 자입니다. 여기에 대해 주님은 "너희가 피해를 준 형제에게 용서를 받으면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용서받지 아니하면 내게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고 하십니다. 아멘

동래언약교회 가정기도회[2025년 1월12일 주일오후]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찬 43장
성경봉독		출 31:13-14
설 교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대독
기 도		부 모
주기도문		다 같 이

주제: "하나님은 언약백성을 거룩한 안식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103문: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1. 안식일 성수의 이유: 창조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 출애굽기 20장은 안식일의 근거를 "창조"에 둡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과정을 보면, 사람을 지으실 때에 절정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서는 크게 기뻐하셨습니다(창 1:31).

하지만 진정한 창조의 목적은 일곱째 날이었습니다(창 2:3).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주시며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위해 떼어 두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날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 날에 당신을 예배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안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당신께서 먼저 안식하셨습니다. 창조주께서 먼저 쉬시기 때문에 그분께 속한 사람도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신자에게 자신의 언약의 울타리 안에 머무는 모두에게도 안 식하도록 하셨습니다(출 20:10).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당신께 속한 언약백 성을 거룩하게 하십니다(출 31:13).

하지만 주인이 바뀌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전에 누리던 안식에 참여할 수 없고, 악한 주인을 닮아 종들도 탐욕적으로 변해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 굽의 종으로 있을 때에는 안식할 수 없었습니다. 창조주께서 원래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당신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창조주의 뜻을 거스르고 마귀의 종이 되려 했으니 더 이상 안식할 수 없습니다.